

삶에 뿌리를 둔 정신의 역사

《고양이 대학살》 《성애의 사회사》

역사를 찾는 여러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있는 옛사람의 자취를 발견한다. '아날학과'로 대표되는 역사학의 실증적 방법론은 당대 사회의 살아 있는 숨결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최근 선보인 두 권의 서양사 책은 시공 저편의 역사를 바로 우리 곁에 펼쳐 보인다.

18세기 프랑스사회의 정신사

프린스턴 대학 사학과 교수인 로버트 단턴(57)이 6편의 주제를 통해 18세기 프랑스 문화사에 접근한 《고양이 대학살》(조한욱 옮김, 문학과지성사)은 역사가들이 무시했던 사소한 자료들 속에서 '아래로부터 형성된 역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단턴은 '역사란 상징적 요소를 캐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있다. 얼마나 많은 역사책들이 사회적 배경을 생략하고 있는지 직시한다.

예컨대 2장의 <생 세브랭가의 고양이 학살>에서는 폭동하는 노동계층의 삶을 밝혀내고 있다. 1730년대 파리 생 세브랭가의 한 인쇄소. 소화시킬 수도 없는 오래된 썩은 고기조각과 음식 찌꺼기, 뜯 한구석 음습한 다락방 침실 지붕 위로 밤새 울어대는 도둑 고양이에 시달리던 견습공들은 고양이를 붙잡아 모의재판에 회부한 뒤 교수형에 처했다. 그들은 이 일을 20여차례에 걸쳐 판토타마임으로 재현했고, 그때마다 인쇄공들은 통쾌한 웃음에 젖었다. 유난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주인여자와 '부르주아'에 대한 통쾌한 보복 '고양이 대학살'은 그것이 혁명

까지 이르지 않는하면서도 밑바닥층의 '작은사람들'이 어떻게 '큰사람들'에 저항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이밖에도 단턴은 <농부들은 이야기한다> <한 부르주아는 그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다> <한 경찰수사관은 그의 명부를 분류한다> <철학자들은 지식의 나무를 다듬는다> <독자들은 루소에 반응한다> 등 여섯편의 글마다 각기 다른 접근 속에서 18세기 프랑스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의 정신사를 읽어내고 있다.

다소 낯선 세계관을 접하면서도 지루하거나 딱딱하기보다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미덕이다.

사랑의 신화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

관념의 사회사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 위에 서 있는 《성애의 사회사》(이종민 옮김, 동문선)는 '성애'를 주제로 한 역사연구이다. 그르노블 사회과학대학 근대역사학 교수인 자크 솔레(64)는 1500년에서 1800년 경에 이르는 서구 성생활의 형태를 실증적으로 파헤쳐 보인다. 유럽지역의 귀족과 부르주아, 농민들과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성애'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 르네상스에서 계몽주의 시대까지 사랑과 성욕, 부부관계, 귀족의 불륜과 부르주아들의 간통, 매춘과 동성애등을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치밀하게 밝혀내고 있다.

흔히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15세가 채 되

두권의 서양사 책은 시공 저편의 역사를 바로 우리 곁에 펼쳐 보인다.

《고양이 대학살》은 역사가들에게 소외됐던 사소한 자료 속에서 18세기 프랑스사회 모든 계층의 정신사를 읽는다.

《성애의 사회사》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유럽지역 사랑의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정화 신은 고양이), 귀스타브 도레, 《고양이 대학살》중에서

기도 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처럼 조혼을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 만혼이 일반적이었다. 아주 젊어서 결혼하는 것은 사회적 신화라는 것. 영국에서는 16, 7세기 아래 혼례제단을 맞기 전 20퍼센트 가량의 여성들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다. 17세기초 영국 귀족계급의 상당수의 부부는 별거중이었으며, 18세기 말엽 파리지 출생아의 30퍼센트가 사생아였다.

저자는 이 모든 '사랑의 역사'를 성을 억압하고 엄격히 관리해온 서구문명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식에서 바라본다. 성의 해방, 특히 여성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자는 그리스도교적인 서구문명과 그 문명이 만들어낸 근대국가의 성 억압을 분명하게 드러내보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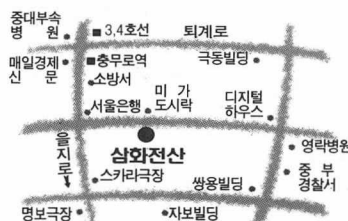
결국 한 국가의 통치체제가 부르주아적인 질서 속에서 종교의 힘으로 개인의 성애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었는지 탐색한 이 책은 '사랑의 신화'가 역사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김지원 기자

IBM분판·윈도우용 아래아한글 전문출력

..... 한글프로 96, 한글3.0B, 도스버전

24시간출력

- 4도분판 코렐, 포토샵, pagemaker
- 단 도 한글96·3.0B·도스, 워드
- 프린트 한글, 한글워드, 혼민정음
- PC로 입력한 data 편집출력
- 한자 및 고어 100% 지원
- 국내의 모든 서체보유



삼화전산 천리안 하이텔 sawh
 전화 263-2651~3 모뎀 277-8097,8

이런분을 기다립니다

- 윈도우용 한글의 출력이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
- 한글을 이용한 조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 한글이 불편하게 생각 되거나 기능에 자신이 없는 분
- 한글을 이용해 조판을 시작하려는 분
- 출력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분